5 BREADS 2 FISH

예수께서 내시는 식사

오병이어

2015 3월

WWW.5BREADSand2FISH.ORG Father's Warehouse: 515 Crocker st. Los Angeles, CA 90013

오병이어 페이스북,이메일 facebook.com/fivebreads.twofish 5Breadsand2Fish@gmail.com 323.400.7830

이미 아주 **유명**한 자들

(잠언 23:1)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베벌리 힐즈에서 온 유명한 변호사, 스캇은 코로나 시의 시의원이신 랜디 목사님과 캐런 사모님이 초대하셔서 아버지 창고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엄청난 금액의 재정이 당신들같은 사역을 찾고 있어요. 정부 관료들과 친해놓으면 좋지요. LA에서만 정부가 가진 빈 건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는 우리 사역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

에 있는 임원들이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방법을 달리하면,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좋은 일' 에 기꺼이 돈을 쓰려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의원과 그 아내, 백만장자 변호사, 그리고 만만치 않은 목사님. 괜스리 작아진 마음으로 계속 듣고만 있다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력한 사람들, 돈 많고 힘 있는 분들과 관계를 넓히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제일 힘들고, 가난하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아주 유명합니다. 사역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정계, 재계 인사들과 관계를 넓혀야합니다."

그가 어떻게 좋게 말해도, 스캇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없고, 예수께서 배고프고, 아프고, 죄를 지은 영혼들과 함께하시며 걸어가신 길에서도 그런 모습은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제안은 항상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듯하게 보입니다. 살아남는 것과, 세를 늘리는 것에 대한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주님의 영광과는 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랜디 목사님은 스캇이 가고 난 뒤에도 조금 더 사무실에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치에 몸을 담고 있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곤해요. 그래도 주께서 보내신 곳임을 알고, 정치인 이전에 기독교인으로써 말하고 행동합니다."

웨스트민스턴 신학교에서 강의까지 하시던 분이 이미 6년째 홈리스 사역을 하시고, 길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 캐런 사모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캐런 사모님 눈이 예쁜 보석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물이 여기저기 질퍽하게 고인 웅덩이들을 피해 아버지 창고의 게이트 쪽으로 향하면서 랜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사로써, 또 정치인으로써 세상과 사역 사이에 중간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대화하면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길은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만 걸어야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컵이 딱 3, 4개 남았을 때...

일요일이라 별로 많지 않을 것같았는데, 막상 밀려오는 사람들은 홈카페 첫 달 내내 그렇듯 550명 정도.

줄은 일찍부터 길기만하고, 컵은 점점 없어지고... 창고에 들어가서 전에 누가 도네이션해주었던 빙수컵이라도 쓰려고 찾아나오는데, 테리가 바쁜 걸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컵 사가지고 오셨어요."

컵이 딱 3, 4개만 남고 딱 떨어지려는 순간에 목사님이 음식점 관련제품 전문점인 캔톤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상점이 문을 열자마자 1등으로 사다주신 컵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어제 오셨던 어떤 장로님께서 주신 백불로 컵과 크리머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것들을 사오신 목사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것 같겠지만 지난 몇 년간의 사역을 통해, 이제는 나도 스태프들도 가슴이 좀 두근 거리기는 해도, 그리 낯선 풍경을 아닙니다.

콩이라는 중국 청년과 내일 한국으로 출국하기전에 한번 더 들르겠다는 이쁜 한나가 함께 해줘서 좋았던 아침입니다.

단순하고, 우직하고, 성실한 날들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분좋은 안정감이 매우 감사합니다.

당신, 배고프세요?

오병이어 홈 카페

겨울의 끝자락, 쌀쌀한 날씨에 잔뜩 움츠린 사람들이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몸을 녹이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여러가지 빵들이 진열된 식기앞에서 몸을 숙이고 무엇을 고를까 결정하지 못하고 생각에 빠진 어떤 분에게 새로운 자원봉사자인 B가 다가갔습니다.

나는 당연히 '무엇을 원하세요?' 정도의 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B의 입에서 나온 생각지도 못한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당신 배고프세요? 배고파요?"

아직 안정된 삶을 살고있지 않는 B는 이 시각, 이곳에서 빵앞에 선 그가 아무 말도 하지않았음에도 그의 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B가 열심히 줄을 서서 몰려오는 식구들에게 커피를 따라주며 배식 후 한 시간이나 지난 후에, 나에게 물었습니다.

"저 빵 하나 먹어요 돼요?"

그가 뜨거운 커피를 몇 잔이나 마시며, 연달아 여러 종류의 빵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미안하고, 미안하고, 미안하고....

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가시나무가 천지입니다.

"나오지마. 차 안에 있어!"

뿔라 과수원으로 통하는 철조망을 열기위해 차에서 내리신 목사님의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내 귀에는 '여기 재미난게 있어!' 로 들렸습니다.

서둘러서 차에서 내리자 마자, 어디선가 '스스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몇 미터 앞에 커다란 방울뱀이 또아리를 틀고 금방 용수철처럼 튀어올듯이 공격적인 자세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마. 얘가 빨리 덤벼들 수 있어요!"

음성이 들리는가 싶더니 뭐가 휙 날아가서, 또아리를 튼 뱀을 정확하게 내리찍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새 커다란 바위를 집어 던지신 것이었습니다. 입을 쩍 벌리고 죽은 뱀은 1미터 30센티는 되는 큰 놈이었습니다.

목사님이 YWAM 마니아데로의 DTS 마지막 강의때문에 가셔야 하는 시간까지 그 힘든 일을 신나게 하시고 나오시면서, 뿔라의 첫 입주민인 호세에게 뱀 이야기를 했더니 멀린과 함께 먹을 수 있다면서 죽은 뱀을 달라고 했습니다. 죽은 뱀을 가고 갈 통이 마땅치 않아 굵은 가지로 뱀을 들어서 자동차 본네트에 싣고 갔습니다.

본네트 위에 축쳐진 뱀을 가까이 보니 비늘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히 같은 문양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나름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뿔라에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가시나무, 전갈 그리고 뱀은 보는대로 없애야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놈을 죽이고 나니 맘이 좀 찌글찌글하네요. 나무마다 꽃을 달고 있는 봄기운이 완연한 아름다운 뿔라에는 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언덕마다 가시나무가 천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가시들과 전갈, 뱀을 없애야 할겁니다.

지불됨(PAID)

알렉스가 커다란 트럭이 아버지 창고에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컵과 크림, 설탕을 사러갔다가 카드가 안되서, 계산대에서 사려고 했던 물건들을 거의 다 내려놓고, 당장 오늘 필요한 것만 간신히 사왔었는데, 알지못하는 낯선 트럭이 온다니까 놀랐던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뭘 끊겠다고 오는 건가? 뭘 들어내가겠다고 오는 건가?'

트럭에서 산처럼 보이는 두 팔렛의 컵을 내려놓고, '지불됨(paid)' 라고 쓰인 영수증에 수령을 확인하는 싸인을 하고나서야 우리에게 뭘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이 도네이션한 컵을 배달하러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확 안심이 되고,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 달이상 컵 걱정을 하지 않게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같은 회사의 같은 사이즈 12온스 컵을 보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충분히 채워주십니다.

사역의 열매

이 아이들이 두 살을 더 먹었다는 것

매주 월요일 밤에 음식을 가져다 주는 몇 국데 중 한 곳의 이름은 마니아데로에 있는 올리비아 교회입니다. 알프레도 목사님은 가끔 우리에게 사진을 보내주십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성실하게 멕시코 사역을 한 것에 대한 열매가 무엇이냐구요?"

목사님이 어느날 스테프 미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2년간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잘 자란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두 살을 더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눈물이 왁칵 쏟아졌습니다. 아직 아이인데도, 현실이 힘들고 마음 붙일 곳 없는 어느 작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와주셔서, 우리가 한 살, 한 살 자라나는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눈으로 보기에 가진 것이 없는 것과 입고 있는 옷이 낡은 것은 별로 큰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고 정답이 없는 것 같을 때라도, 너희가 사랑받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같이 가주겠다고, 우리도 모르는 것이 아주 많지만 너희들이 커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

벌써 몇 달째, 션 선생님께서 일요일 예배가 끝난 후에 본인의 차로 시니어 하우징에 식료품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봉지 안에는 고기, 야채, 과일, 과자,초콜렛, 말린 과일 등등 어른들이 좋아하실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다 챙겨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매주 같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봉지마다 내용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100개가 훨씬 넘는 고기가 들어올까 싶어서 처음에는 봉지에 고기를 넣지 않았다가, 언제부터인가 고기가 무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나서 봉지에 고기를 넣다가 이번에는 고기마다 사이즈가 다른 것이 맘에 걸렸습니다. 어른들이 서로 비교하고, 그러실까봐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작은 고기는 올게닉이라서 그런 거예요. 작기는 해도 더 비싼 거니까 속상해 하시지 마세요."

션 선생님이 어른들께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번에는 또 서로 작은 고기를 가져가시겠다고 한바탕 소동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어른 분들의 마음은 아기들 같아서, 별일이 아닌 이유로도 금방 속이 상할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안이 보이지 않는 검은 봉지로 하나씩 싸서, 누가 욕심을 더 내거나 비교할 수 없이 해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노인분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숙집사님의 말씀처럼, 이 음식으로만 일주일을 사시는 어른들도 계시다니, 곳곳에 힘든 분들이 많은 것을 알겠습니다.

다들 쇼셜 베네핏을 받고 계셔서 괜찮으실 걸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름대로 힘든 사연들이 또 아주 많습니다. 이번 주 부터는 시니어 봉지가 170개로 늘어서, 션 선생님의 차에 가득 실어도 다 실을 수 없는 식료품 봉지들을 영석이가 자기 차에 실어줘서 함께 가디나의 세 군데로 푸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충분히 공급해주시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오랫동안 계속 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받은 션 선생님의 짧은 메세지에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쿵했었습니다.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

금식하는 날

커피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가 사소한 일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키가 큰 두 남자가 서로에게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냈습니다. 내내 밖에 계시다가 마침 잠시 안에 들어오셨던 목사님이 얼른 뛰어나가셨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에 침을 잔뜩 뱉어놓고 저쪽에서 계속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목사님은 침을 얼굴에 묻히고, 화가 나서 길길이 뛰는 사람을 꼭 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는 본인 옷소매로 그의 얼굴의 침을 닦아 주었습니다.

스키드로에서 어떤 싸움이 나도 주로 구경만하던 사람들이 다들 몰려와서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도 원래 이런 사람들이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깨에 지워진 험악하고 힘든 어둠의 고리를 누군가 끊어주고, 자기들 사이의 싸움을 말려주기를 매우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끄러운 와중에 뒤에서 빵과 케이크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멕시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목사님이 웃으며 한가지 사건을 더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길래, 그(녀)에게 와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돌리고, 양쪽 어깨를 적당히 흔들며 어떤 음담패설을 던졌습니다.

"Oh, No.....!"

생각지 못한 그(녀)의 말에 목사님이 고개를 흔들며, 기가 막혀서 하며 웃으셨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줄을 서 있던 삼십분 남짓한 식구들이 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사님께 성희롱을 시도했던 그(녀)도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창조주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에 기반을 두고 탄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은 큰 복이며,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에 대해 알게하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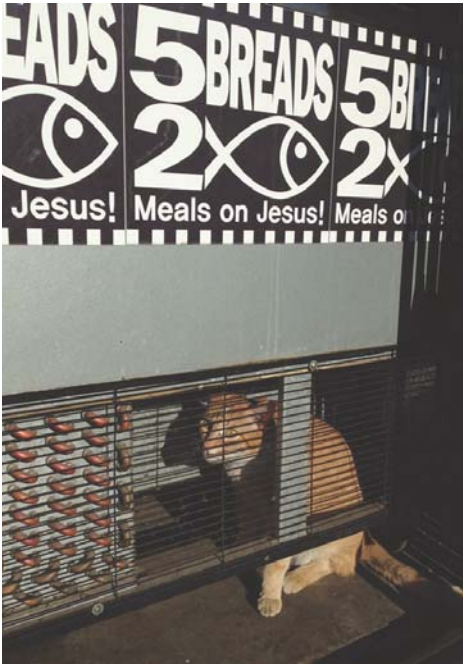
우리 스키드로 식구들과, 오병이어 스테프들,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봉사자분들이 예수님때문에 풍족한 잔치를 벌일 때, 주님 안에서 서로 더욱 친해지고, 다 같이 매일 더 주님께 가까와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생각하는 하루입니다.

세상을 향해 난 작은 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홈카페 배식이 끝나고,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지나가는 발걸음이 그쳤습니다. 내일을 위해 깨끗이 닦인 빈 선반 위에는 아까운 영혼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과 정직한 기도들이 곱게 남았습니다.

(이사야 58:6-7)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호랑이 같은 타일러, **새침떼기** 새라, **난폭의 아이콘** 진도



LA시에서 도시환경 정화를 위해 하수구에 가스를 살포하는 바람에 도시의 시궁쥐들이 지상으로 쏟아져 나와 다운타운 건물들로 무단침입한 사실을 말씀드렸었지요. 우리도 지난 몇 주간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쥐덫과 쥐약으로 역부족이었던 상황. 밤마다 파티를 하며 계란도 다 까먹고, 과자도, 피망도 못쓰게 갉아놓았던 나쁜 녀석들.

페친 중 어느 분이 소개해준 전자파 기계는 혜진이가 바로 사서 구해주었고, 쥐들이 치를 떨며 싫어한다는 상큼한 페퍼민트 오일은 물과 섞어 구석구석 창고 주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반나절이나 걸려 구해온 두 마리 고양이, 호랑이같은 타일러와 새침떼기 새라.

헥터 아저씨는 아무나 막 물고, 아는 사람에게만 달콤한 혈기왕성 진돗개인 우리 '진도 싸이' 를 데리고 저녁마다 쥐 사냥을 해서, 어느 날은 진도가 쥐를 네 마리나 물어죽이는 쾌거를 거두었고, 진도를 보고 머뭇거리는 뚱뚱이 쥐들은 헥터 아저씨의 가차없는 몸둥이에 처단되었다는 무용담을 들려주었습니다. 헥터 아저씨는 난폭의 아이콘인 진도가 좋은 보디가드라고 되게 이뻐하십니다. 나도 진도가 무지 이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끝에 이제 쥐들의 파티가 거의 끝나가기에 안심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오늘 푸드 드라이브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답니다.

어디서 들어갔는지 트럭에서 작은 쥐가 한 마리 쪼르르르!!!

음식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미처 놀랄 사이도 없이, 마을 잔치처럼 온 가족이 나오는 푸드 드라이브에 따라나온 개들이 좋은 장난감을 만난듯이, 작은 쥐에게 달려들어 한참을

놀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깔깔대고 재미난 구경이라도 난듯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어제도 작은 쥐를 하나 잡아서 입에 물고 의기양양 넓은 창고를 가로질러 가다가 캐니에게 걸려서 죽은 쥐를 빼앗겼다는 타일러. 타일러는 아침에 우리가 커피와 빵을 나눠드리는 시간에 배식대 아래 작은 공간에 떡하니 들어가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동물 보호소에 있을 때 철장 안에 있었던 생각을 해서 그런건지, 두 시간동안 그렇게 왔다갔다 잘도 다닙니다.

배식 시간 이후에 오신 두 분의 식구에게 창살너머로 바나나와 빵, 커피를 건네는 모습을 의젓하게 지켜보는 타일러. 그래도 밖으로는 나가면 안되는 걸 알고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창고의 철문과 벽에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철문에서 우체국, 오병이어 카페의 벽에서 이제는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쥐도 없어지고, 벼룩도, 이도 다 없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최선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 좋은 나라 미국에서 우리는 한국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때에 듣던, 어떤 시골 마을의 소소한 이야기같은 일들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런 재미난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이 즐겁습니다.

뭘 그렇게 까지 해야 하나요?

"뭘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요?"

이번에 오병이어 홈 카페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본인이 제일 좋아하시면서 항상 없어서 못마시는 액상 크리머를 사려고 하실 때, 몇마디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느냐, 우리도 가루 크림 조차 없는 적이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냐?' 는 둥....

결국 주머니 사정상 가루 크림을 사서 나오면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고 싶다고 끝까지 아쉬워하시는 목사님 뒤를 따라가며 한숨이 절로 나왔을 때, 발바닥은 피곤하고 밤하늘에 별이 총총 빛났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사무용품 회사에서 24팔렛(사진에 지게차로 옮기고 있는 나무판이 한 펠렛)의 물건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14팔렛을 받았고, 이번 주에 10팔렛을 더 받습니다. 그 안에서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품지 못했던 좋은 커피 머신을 몇 개나 찾아내었습니다.

"지난 2년간 고생한데 대한 상이라고 생각하고 멕시코에 가지고 가서 드세요. 이제까지 고생 밖에 한 게 없잖아요."

헥터 아저씨가 음식과 함께 들어온 액상 크리머 세트들과 커피 머신용 작은 커피 컵들을 잔뜩 싸주셨습니다. 어떤 커피는 1인용 작은

컵 하나에 1불이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게 각기 다른 기관에서 같이 들어온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스테프 미팅하는 사무실에는 이번에 받은 커피머신과 함께 로보트 같이 생긴 2천불짜리 레이저 프린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우체국 데보라가 프린터 필요하다 말한 것을 꼭 누가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버튼도 많고 몸집이 큰 것이 꽤 전문가용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어떤 분이 지원해주신 상업용 정수기가 아버지 창고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수된 물로 커피를 만들어 나누어 드릴 수 있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잘 해주실 때, 모자란 누군가가하는 "뭘 그렇게까지 해야하나요?" 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시고,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안심입니다.

김이 모락모락나는 커피가 다 나오니, 커피 머신의 화면에서 "Enjoy!" 라는 글씨가 딱 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실 때, 감히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벅찬 것 같은데 목사님은 뉴욕과 시카고도 여기처럼 해야한다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낮인데도 내 눈에 별이 총총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100불에서 초과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고치려면 300불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100불 밖에 없길래 어떻게 우선 그것만 드리고 오려고 수리점에 갔는데, 디덕터블로 수리비가 해결된거예요."

아버지 창고 테이블에 앉아서 허브에서 노란 잎을 골라내며 조용주 사모님이 해맑게 웃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불이 굳었다 싶어서 너무 좋았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파트 공동 세탁장에서 빨래를 하면서 세탁기 위에 100불을 올려놓고, 빨래를 다 건조할 때까지도 아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지갑이고 뭐고 샅샅이 뒤져도 나오지 않는 야속한 100불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서 계속 울었다는 사모님의 모습이 쉽게 상상이 되었습니다. 앉아도, 서도 생각나는 100불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났었답니다. 그래도 아들한테 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화장실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는데, 아들이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는지 그러지 말고 혹시 모르니 세탁장에 공고문을 하나 붙이면 어떠겠냐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현금을 찾을 확률은 0%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아파트 매니저가 공고문을 붙이도록 해주었고, 0%의 확률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공고문을 보고서 양심껏 돌려준 100불은 저녁때 사모님의 손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100불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100불 찾게해주시면 오병이어에 헌금할께요.' 하셨다던 사모님은 목사님과 함께 며칠 사용할 수 있는 컵과 크림과 설탕을 사가지고 아버지 창고에 나타나셨습니다.

"다 사고 계산을 하려는데, 95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더 사면 130불이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100불에서 초과가 되는데요...' 했다가 항상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이러면 안되지 하고 하나를 더 사가지고 왔지요."

조용주 사모님의 남편되시는 시원장로교회 이현행 부목사님은 옆에서 사모님의 이야기를

그냥 웃으면서 듣고 계셨습니다.

100불때문에 그렇게도 울었다더니 거기에 더 보태서 이렇게 기분좋게 컵과 크림, 설탕을 사오셨던 그 마음에 감격하고, 많이 감사했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아픔과 절박함이 있다면, 또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순종의 기쁨 또한 있습니다.

매일 와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의 찢겨진 마음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직한 예배를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니 그가 그의 일을 직접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조용주 사모님과 이현행 목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홈카페에 아침을 먹으러오는 가족 중 한 분이 고맙다며 100불짜리 우체국 머니오더를 만들어서 주시고 가셨습니다. 헌물하시는 분들마다 다 이야기들이 있을텐데.... 홈리스인 이분에게도 이 100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로 드려지는 보물로 사역을 영위하게 하시는 것에는 그의 영광을 위한 거룩하신 이유가 있겠지요.

목사의 아내

사역자의 삶의 '안정감' 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실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사역자로써 느끼는 궁핍과 불확실성에 의문을 가진다면, 오직 '주님 안에서의 믿음' 으로만 대답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사의 아내로써, 너무 힘들다고 하면 그의 발걸음이 느려질까봐, 두렵다고 하면 그의 어깨도 움추려들까봐 걱정하며 기도하는 날이 거의 매일입니다. 사랑한다하면서 나의 연약함으로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 외롭다고 느껴질 만큼 아무도 함께 걸어주지 않았던 어떤 길에 땀방울과 눈물방울과.... 때로 빨간 핏방울이 떨어질때, 그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써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잘 이해할 수 없었어도, 그가 울면서도, 울면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연약함을 가장한 악한 눈물이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모자란 나의 지식으로 그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꾸시는 꿈을 보여주실 때, 나의 어리석은 계산법을 그 앞에 들이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이 선한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생명으로 통하는 길인건지, 주님께서 직접 그의 영광으로 증명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이 길에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 그가 계속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2:10)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

언제든 그만둘 마음

"자원봉사자들까지도 서로 밀치고, 훔치고 좋게 말해도 듣지않고, 본인 것 챙기는데만 바빴어요."

코리아 타운으로 가던 수요일 푸드 드라이브(normandie & 8th)를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야했던 캐니 형제가 전해준 말입니다. 목사님과는 벌써 여러번 상의가 되어 계속 그러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중단하자고 이야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함께 갔었던 스텐 선교사님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기 때문에 푸드 드라이브를 중단하겠다는 캐니 형제의 말에 동의하는 뜻으로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도리어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1년도 넘게 우리 스테프들이 한국 할머니들에게 등짝도 맞고, 험한 욕도 많이 들어가면서 갔었던 곳인데, 이제 중단하게 되어 안되었습니다. 옳게 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오병이어 사역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기가 아니라도, 매주 9군데 더 푸드 드라이브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리로 가시라고 안내문을 나눠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주시라고 당부하고 돌아왔던 캐니는 그날밤 녹다운이 되어, 아침이 되고도 한참이 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고된 것보다 이런 일을 보고, 듣고, 거치는 것이 힘들겠지요.

점점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이지만 옳지 않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고칠 마음이 없으시다면 언제든 그만둘 마음은 같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로움과 정함으로 도시가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월요일 풍경

그의 이름을 지키는 자

아버지 창고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와 마음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직 그녀와 하나님 사이의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이유가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침부터 부랴부랴 달려와서 지갑째 건네준 5,000불을 가지고 아버지 창고의 건물주이신 토마스 아저씨에게 갔습니다.

"우리 좇아내지 말아주세요."

맑고 파란 눈동자의 가장 자리에 낀 하얀막들을 보면서, 그가 지난 3년간 더 나이를 드셨구나 생각했습니다.

"렌트비를 자꾸 이렇게 많이 밀리면 좇겨나게 될거예요."

그가 말을 끊고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당신들 힘들게 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정말 좋은 조건으로 빌려준 걸 알잖아요."

네. 12,000불은 받을 수 있는 빌딩을 4,000불도 안되게 빌려주시고 계시니 그가 우리에게 정말로 잘해주고 계신거지요. 그 조차 5개월을 밀렸으니, 사실 우리는 그에게 별로 할 말도 없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자꾸 밀려서 미안하다고 말하려는데 그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서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밀린 렌트비들 잘 내세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당일 아침까지도 막막하던 일이 해결되었다는 가벼움과 이럴 걸 괜히 며칠을 울고 불고 했구나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연락이 된 A는 우리가 왜 힘든 사정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역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 몇 안되는 친구 중 한 명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를 좇겨나는 것이 겁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궁핍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전화기를 붙잡고서 눈물을 뚝뚝뚝 흘렸습니다. 감히 그럴 수 있다면, 그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는데 목이 막혀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의 강을 예수의 이름만 들고 지나는 것도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인 것 같아요."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의도로 사역이 돌아가고, 그럴 때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

에 동의한다고 A에게 전했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값지고, 다이아몬드보다 아름다운 주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님께 자기의 결혼반지를 헌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반지를 아버지 창고 밀린 렌트비내는데 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그의 제안을 목사님께 전했고, 목사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결혼반지는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지는 가지고 있을께요. 그렇지만 반지가 가지는 의미보다 그 값어치가 떨어지는 돌은 빼서 큰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배려해줘서 고마워요."

(시편 8:3-4)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같은날, 아침일찍 부터 한국의 뉴스앤조이 김종희 대표님과 함께 비젼트립으로 미국여행 중인 미자립교회 목사 자녀 10명이 아버지 창고를 찾았습니다.

마침 전날 쏟아붓듯 내리던 비 때문에 줄은 이미 한 블럭을 더 넘어서 길기만 하고, 차갑게 언 손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커피를 받아드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듯 아이들에게 서빙 받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잠깐 쉬는 동안, 한 아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 물어볼 것 있는데요. 목사님 이런 거 아시고서 결혼하신 거예요?"

목회자의 딸. 특별히 작은 교회를 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의 딸. 이 이쁜 아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나.

깔깔대며 산만하던 아이들이 안그런 척하지만 이쪽을 보고 귀를 귀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And I like it.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웃고 있었지만, 툭 치면 피가 배어나올 것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확실한 것 투성이인 것같은 이 믿음의 길이 정말로 좋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가 이끄시는 길은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룩한 길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어느날, 하나님께서 한 아이, 한 아이 직접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길이 아름다운 것을, 혼란스럽게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오직 생명의 근원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로 그만두면 안되지요

발바닥이 멍이라도 든 것처럼 걸음을 뗄 때마다 너무 아파서, 길에 서서 엉엉 울고 싶었던 월요일밤. 멕시코 국경에서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가지고 가는 음식들을 통과시킬 수 없다하고. 국경에서 한 시간 이상 지체했지만, 그들이 주먹구구로 정해서 내라고 하는세금은 낼 돈이 없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가 다른 국경을 통해 멕시코로 들어갔습니다.

월요일 밤에 음식을 가지고 들르는 몇 군데 멕시코 사역지에 늦어서 미안하다고, 자정쯤 도착하겠다고 말씀을 전하면서 인적없는 어두운 길을 달렸습니다.

냉정하게 따지자면, 물위에 식물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일들을 그만 두어야할 이유들은 도리어 충분하고도 충분했습니다. 멕시코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며, 시간을 맞춰야하고, 타당하지 않은 세금을 내고, 미국으로 돌려보내지고, 국경 수비대원들에게 이제 또 걸리면 여권에 빨간줄 간다고 공갈, 협박을 받기도 하고....

전에도 이런 일을 겪었었을 때, 목사님에게 투덜댄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 넘어올 때마다 신경쓰이고 힘든데, 이제 음식은 그만 가지고 올까요?"

목사님은 전혀 방금 강행군을 마친 병사같지않은 밝은 얼굴로 운전대를 잡은 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2년이 넘도록 해온 일인데, 우리가 조금 돌아가면 될 걸가지고, 이런 일로 그만두면 안되지요. 왜, 힘들어요?"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역의 무게와 심각성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증명하기 보다,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루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옆에서 보는 것이 복이라 생각되어 감사합니다.

멕시코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것 뿐아니라, 사역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사실 그만 둘 수 있는 이유들은 흔하디, 흔합니다. 자금이 없어서, 누가 기분이 나빠서, 다른 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안좋아서, 돌봐야할 누군가 있어서, 하고 싶은 다른 일들이 있어서....

어떤 일을 먼저하고, 나중에 할 것인가 혹은, 그 일을 위해 얼마나 오래 참고, 힘든 일들을 견디며, 얼만큼의 희생을 하고, 물과 피를 쏟을 것인가는 각자가 자유의지로 결정해야하는 예배의 영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역을 한다하며, 나의 부족한 식견에 맞춰 그의 뜻을 잘라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를!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오직 은혜의 바닷가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꽉 찬 하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혼자 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너무 작게 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구."

뿔라에서 종일 곡괭이질을 하시고, 해가 지니 이제 돌아오시는 길에 전화를 주신 목사님 목소리는 피곤한 기색이 없이 맑고 씩씩하기만 합니다.

"내가 한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지않느냐하시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구. 오늘 나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어."

전화를 끊고 안심이 되서 그런건지, 혼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역자로써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지고가야 할, 그 어떤 묵직한 순종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며칠 전 바닷가에서 죽은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식어버린 심장이 아직 몸 안에 있어도 생명이 없으니, 밀려오는 파도에 힘없이 쓸려다닐 뿐인 작은 몸. 우주에 꽉 차 계신 창조주의 숨결과, 그가 말씀으로 지으신 생명이 넘치는 바닷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죽음조차, 그가 지키시는 약속의 일부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피 속에 온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있음의 찬란함과 사랑에 빠진 자의 투명한 눈으로 전능자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허락되는 안정감으로 꽉 찬 이 저녁이 감사합니다.

뿔라 커다란 대문과 첫 입주민 호세, 멀린

"여보..." "왜요?"

뿔라에서 가시나무들을 쳐내기에 여념이 없으신 목사님을 부르기는 했는데....

"....." "집에 가고 싶어서?" "네."

그가 서 있기도 힘든 땡볕에서 턱턱턱 곡괭이질을 계속하며 대답했습니다.

"안되~애. 해가 질때까지 계속 해야돼. 저쪽에 가서 사진을 찍던지, 재밌게 놀고 있어."

그의 말대로 놀만한 곳을 찾아헤매다가, 큰 물통 옆에 그늘 속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맑은 공기와 새소리들을 잔뜩 머금은 바람이 어찌나 시원하고, 상쾌한지 모릅니다.

앞 마당에는 뿔라의 최초 입주민인 호세와 멀린부부가 자리를 잡은 것같고, 뒷마당에는 생전 처음보는 망고꽃들이 나무마다 흐드러지게 펴있습니다. 얘네들이 그 무거운 망고가 된다면 도대체 이 휘청거리는 가지들은 어떻게 된다는 건지.... 더 지켜볼 일입니다.

"닭고기를 요리해서 뒷마당에서 딴 레몬을 넣고 먹었는데, 얼마나 향이 좋고 달콤한지 몰라요."

멀린이 행복해보여서 나도 좋았습니다. 호세는 뿔라가 평화롭고, 너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곳에는 나무마다 꽃봉오리들이 다 맺혀있어서 활기찬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입구는 어른키의 두 배만한 현관문이 달렸고, 큰 트럭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진입로의 시작점이 완성되었습니다.

황폐한 곳을 사람이 거할 곳이 되게하시고, 그 땅이 비좁을만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먼 미래의 어느날..... 닿지 못하는 그리운 그 어느 때의 막연함 아니라, 지금 주께서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이 그치는 오늘임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LA 푸드 드라이브 스케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내신 식사입니다.

일주일에 8만명분의 식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욱 많은 곳에서 푸드 드라이브가 열립니다.
기도해주십시오.

자원봉사를 원하시면 각 지역으로 30분전에 가시면 됩니다.

5 BREADS 2 FISH Meals on Jesus!

Monday: 4:30 PM (delivery only)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3225 Tyler Avenue
El Monte, CA 91732

Monday: 2:00 PM
E.Rancho Dominguez Service Center
4513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uesday: 2:00–3:30 PM
Ramona Gardens Recreation Center
2830 Lancaster Ave.
Los Angeles, CA 90033

Tuesday: 2:30–4:00 PM
Victory Outreach Rehab, Compton
613 N.Crane Ave. Compton, CA 90221

Wednesday: 3:40–5:00 PM
4513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hursday: 2:00–3:30 PM
(1) Boys and Girls Club East LA
324 N. McDonnell Ave.
Los Angeles, CA
(2) Watts Senior Center
1657 E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02

Friday: 2:00–3:00 PM
Carecen Day Labor Center
16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Saturday: 3:00–4:00 PM
MacArthur Park
2230 West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57(temporary)

문의: 5breadsand2fish@gmail.com

거룩한 자의 발걸음

오병이어 이준 목사

과연 예수님의 몸이 되었는가?

어쩌면, 이 질문을 평생 물어보아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다' 해도 '느껴왔다' 해도 실제적이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실체화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으로, 느낌만으로, 또는 지식적인 이해나 깨달음만으로 암울해할 때에 예수님이 출현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출현' 은 진정한 충격이자 신선한 바람이었으며 어떤 사람들에겐 인생을 새롭게 써 내려갈수 있는 새로운 삶을 향한 길이 되었습니다. 형이상학적으로만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 예수를 통하여 실제화됨을 하나님은 "말씀이 이땅에 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표현하십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 보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와의 허심탄회한 만남조차도 없는 자가 그를 '주' 라 부른다고, 그를 주인이라 여길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돈과의 만남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돈의 첫인상' 이라 말하면 이상하지요? 돈을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첫인상' 이란 말을 안쓰는 것처럼 '예수' 와의 만남속 에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그를 대하고 바라보는 모든 시각은 그렇게도 이상한 것 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수 없다' 하신 뜻을 또 다시 들어보면, '재물' 과의 만남이나 '하나님' 과의 만남을 비슷한 만남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이라 설명하신 예수님의 눈동자 속에 당신이 비추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가까이 바라보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위까지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개도 돌리지 말고 그의 거친 숨소리 속에 가라앉아있는 당신의 이름을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실체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땀에 젖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고 듣고 갈망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거룩한 목마름이, 양심의 회복이, 거룩한 불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이 되어 하나님을 영으로 바라보게 될수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만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의 영을 구한 자는 이제 실체적 성전의 삶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악의 창고에서 의로움의 성전으로, 어둠의 독방에서 빛의 성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시면 그는 하나님의 불을 지니게 된 자로서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품이 타오르게 되고 점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의 도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그제서야 유대가 보이고 사마리아도 보이고 땅끝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이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불로 타올라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친구이시요, '구세주' 이십니다.

구세주란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겐 불편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나친 종교인들의 불편한 모습들로 인해 사회적 악행이 저질러져왔고, 실제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듯한(?) 종교적 단어로 전락해져가는 양상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세주' 란 단어의 시대적 오해를 푸는 노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Savior' 란 영문의 단어는 '살려준 자' 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님이나 구세주로 부르기 전에 진정 하나님께서 '예수' 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통해 "나를 살려주셨나?" 를 상고해 봐야 합니다. 또, "진정 나는 살아났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어쩌면 살아났고, 또 살아나고 있고 더욱 더 살아날 것이다가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내 자신이 그 사건의 수혜자인가, 피해자 인가, 아니면 방관자인가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고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등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이 할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정직한 고민과 그로 인한 결정은 오직 영물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영물들의 '창조주인' 이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이라 표현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멜랑꼴리 한 시적인 표현만을 거부하고 처절하도록 실제가 되었으며, 이를 실행에 올린 하나님의 대담하다못해 위대한 사건은 스스로를 십자가에 허락한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해 클라이막스에 다다랐습니다. 무지한 자들을 아랑곳 하지 않고 나아가 더, 위대함으로 내달린 하나님의 사랑은 부활의 아침엔 눈이 부셨으며 거룩하셨습니다.

과연 거룩한 자들의 행보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기를 바랍니다.

과연 오늘 나는 거룩한 자의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지 '걸음걸이' 를 살펴보십시오. 살아나기위한 걸음걸이가 있는지 말입니다.

도네이션

(1) Paypal 어카운트를 이용하시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매달 일정액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http://5breadsand2fish.org/k-donate.html

(2) 체크 check payable to: ORM 515 Crocker St. Los Angeles, CA 90013

(3) 은행이체를 원하시면(해외/국내 송금)

입금은행 : Bank of America

818-840-1600/142 E olive ave. Burbank CA 91502

입 금 주 : Oaks of Righteousness Ministry

Routing # : 026009593 / Account # : 000217028878

(4) 연락처: 818-531-5332 www.5breadsand2fish.org/k-index.html

의의나무 사역

Oaks of Righteousness Ministry은 2009년 창립된 IRS인증 세금공제 비영리법인입니다.

5 BREADS 2 Meals on Jesus!